

후지보 홀딩스의 사업전략

- 체질개선 끝내고 하반기부터 반전공세 시작

후지보 홀딩스는 중기계획에 따라 섬유사업 체질을 개혁해 왔다. 이익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적자로 경영이 어려웠던 와카야마(和歌山)의 프린트 공장과 고야마(小山) 공장의 표백가공을 철수시켜 채산이 맞지 않는 분야를 줄였다.

2007년 상반기에는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 업적도 개선되고 있다. 또한 2007년 9월 1일에는 후지보 텍스타일과 후지보 파이버를 합병하면서, 섬유사업회사를 재편하여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하반기부터는 마침내 반전공세(反轉攻勢)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섬유사업은 체질개선을 추진하면서, (구)후지보 텍스타일과 (구)후지보 파이버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왔는데, 실(絲) 사업을 맡고 있는 후지보 파이버를 후지보 텍스타일로 바꿈으로써 파이버가 텍스타일에 흡수되었다.

원래 후지보는 실부터 텍스타일, 제품까지 사업을 해왔으므로, 합병으로 다시 실부터 텍스타일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합병되면서 그동안 떨어져 있던 파이버와 텍스타일간에 의사소통이 잘 될 것이며,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스피드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상반기 상황을 보면, 그동안 사업 체질이 좋아지고 있어 (구)후지보 파이버만이 고전하고 있을 뿐, 후지보 어패럴, (구)후지보 텍스타일, 후지보

고사카이(小坂井) 등은 모두 증익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 후지보 텍스타일에서는 와카야마 공장의 프린트 가공이나 고야마 공장의 표백가공 등은 채산이 안맞는 분야라서 철수하는 등 사업구조를 크게 바꾼 것이 효과가 나오고 있다. 2007년 상반기도 업적이 회복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수요기(需要期)가 되므로 9월 이후에도 좋은 업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후지보 어패럴은 재고 문제로 어려웠었는데, 2006년 중에 처분하였으므로 2007년 상반기에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후지보 어패럴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인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경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별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다.

섬유사업회사를 재편하면서 (구)후지보 텍스타일 사업중에서 이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이차제품이나 텍스타일을 후지보 어패럴로 옮겼으며, 후지보 텍스타일에서 맡는 것이 좋은 것은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 예컨대 후지보 어패럴에서는 앞으로 중요 포인트의 하나인 물류를 개혁하고 있는데, (구)후지보 텍스타일이 맡고 있던 제품사업도 후지보 어패럴이 살릴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후지보 고사카이(小坂井)는 이겨넣기 기술 등으로 특화한 용융방사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만 집중하여도 스판덱스 없이 흑자를 낼 수 있으므로 스판덱스 설비 가동을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화학제품사업도 있어 단독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의 재편에서는 뺐다.

2007년 하반기에는, 아직 약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섬유사업은 체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동안 사업구조를 개혁하느라 사업규모가 줄었는데 이제는 반대쪽으로 공세를 펼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絲) 사업에 있어서 5만추 정도의 설비는 전력을 다하여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다품종 소로트 체제로 공장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이다(大分)공장은 이층(二層)구조사나 복합 등, 특화사(特化絲)를 주로 생산하면서 텍스타일로 이어나가는 비율을 올려나갈 것이다.

해외사업으로서는, 중국의 제성 후지보(諸城 富士紡)에 와카야마 공장에서 부장급 기술자를 거의 상주에 가깝게 파견하고 있다.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므로 앞으로 판매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후지보 텍스타일 상하이 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셔츠지 등 직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니트 등까지 사업을 벌려나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

타이 후지보 텍스타일(TFT)은 5월에 오이다(大分)공장의 코어 스펀 얀(corspun yarn) 설비를 이전시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가동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에는 월 5톤 생산을 1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고야마공장에 있던 38인치 편기를 옮겨, 원형편이나 신축성 폴리우레탄에 카버링(covering) 안한 실(裸絲 : bare yarn)을 평편에 짜넣은 니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는 양면편포나 산업자재용 등으로 사업을 넓히며 증설도 고려하고 있다. TFT는 생산코스트와 품질을 무기로 태국 국내와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베트남 봉제로 이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